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

Parental Role Conflic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Dual-earner Couples

전남대학교 생활환경복지학과

박사과정 김혜신**

교수 김경신

Dept. of Family Environment & Welfare, Chonnam University

Doctoral Course : Kim, Hye-Shin

Professor : Kim, Kyeong-Shin

〈Abstract〉

This study were looked for the common patterns of dual-earner couples' parental role conflicts, psychological well-being and the variables that influence their psychological well-being. The data of this study were collected from 265 dual-earner couples, and were analyzed using frequencies, percentage, means, Pearson's correlation, Cronbach's alpha, one-way ANOVA, Duncan test, multiple regression.

The major finding are summarized in the following.

(1) In general, the wives' level of parental role conflict was higher than the husband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husbands and wives in terms of psychological well-being and life, but wives' depression was greater than husbands'. (2) As for the variables that affected parental role conflict, income, the age of the first job satisfaction, work adjustment, parenting satisfaction, parenting participation by the husband, the level of child care expenses, and cognitive assessment of mother employment were found to be significant. (3) For both husbands and wives, psychological well-being was positively related to income, education level, job satisfaction, level of job importance, work adjustment, parenting satisfaction, parenting participation by the husband, cognitive assessment of mother employment. (4) Couples' psychological well-being was influenced by job satisfaction and parental role conflict.

△ 주요어(Key Words) : 부모역할갈등(Parental Role Conflict),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

1. 서론

산업화 사회로 인해 교육기회가 증대되고 여성에게 적합한 직종들이 개발됨에 따라 기혼여성의 취업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맞벌이 가족은 우리나라에서 보편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기혼 취업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조사대상자의 80% 이상이 자녀양육상의 문제를 안고 있다고 응답하여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의 병행으로 인해 겪는 가장 큰 어려움은 바로 자녀양육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여성개발원, 1986). 자

녀양육은 부모에게 심리적, 사회적 안정감을 주는 긍정적인 평가가 있는 반면 자녀양육으로 인한 심리적, 경제적 부담과 가사노동의 증가로 인한 신체적 피로감은 어머니로 하여금 개인생활을 가질 만한 여유를 주지 않고 정체감상실의 위기를 초래하기도 한다(Webster-Stratton, 1988). 특히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의 경우에는 더욱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 있어, 취업여성의 생활만족에 큰 기여를 하는 요인은 여성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어린 자녀가 안전하게 양육되는지의 여부이다. 자신이 직장에 가고 없는 동안 자녀가 안전하게 지내고 있는지 염려를 하게 되면, 자기 일에 몰두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죄책감을 가지게 될 것이다(서영숙, 1990). 특히 공식적인 영유아기 탁아 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적절한 자녀양육 대안을 찾

* 이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에서 일부 발췌한 것임.

** 주저자 : 김혜신 (E-mail : sunsho@dreamwiz.com)

지 못한 취업모의 심리적 부담은 매우 높아질 수 있다(백경임·강희경, 1996).

지금까지 맞벌이 가족에 대한 연구는 어린 자녀를 둔 취업모 혹은 좀더 폭 넓게 학동기 자녀까지 둔 취업모를 대상으로 해서 취업부인의 역할갈등, 긴장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이연숙·이순형·유가효·조계순, 1991; 조은숙, 1997). 자녀의 초기 사회화를 담당하는 주된 역할자는 어머니라는 인식이 보편적이므로, 그러한 시기에 취업을 하고 있는 여성들의 역할갈등과 이에 대한 대처 방법, 적응수단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려는 목적에서 여러 연구들(조은숙, 1997; Greenberger & O'Neil, 1993)이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어머니의 양육스트레스를 가족스트레스의 하위영역의 하나로 다루거나 취업부인 한편만을 다룬 연구, 취업부인을 통해 부부를 본 연구가 대부분이었고, 부부간의 차이나 부부를 하나의 공동체로 규명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근에는 자녀양육에서 부부 모두의 역할을 증시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는데, 아버지로서의 역할기대와 실제수행간의 불일치로 인해 죄책감을 느끼는 아버지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숙현, 1995; 한경혜, 1997; Hawkins & Roberts, 1992)과 함께 일-가족 갈등이 더 이상 취업모의 문제가 아니라는 주장(황택순, 1992; Pleck, 1993)이 대두되고 있다. 이 발견은 육아의 가족 연구와 평가에 아버지를 포함할 필요성(Pleck, 1985)이 증가함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맞벌이부부의 삶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스러운가를 파악하는데는 심리적 복지 개념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심리적 복지에 대한 연구는 생활만족도나 우울 등의 어느 한쪽 면만을 다룬 연구가 주로 이루어졌으며, 일관되지 않은 결과(고정자·김갑숙, 1997; Thomas, Albrecht & White, 1984; 이형실, 2001; Windle & Dumenci, 1997)를 보이고 있으므로 맞벌이부부의 심리적 복지를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부 쌍을 대상으로 긍정적인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 모두를 살펴보는 노력이 요구된다.

이처럼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 중에서 특히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이나 스트레스가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Deater-Deckard & Scarr, 1996)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를 연결시켜 분석해 보는 시도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맞벌이 부부의 부모역할갈등이나 심리적 복지는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 이외에 근무시간이나 직업만족도 등 직업에 관련된 변인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며, 자녀에 미치는 모 취업영향, 타아만족도, 부모역할관 등 자녀관련변인들이 탐색되어져 왔다(옥경희, 1999; 이숙현, 1995; 임정빈·정혜정, 1986; 현은강, 1993; Spitze, 1988). 그러나 이들 변인을 함께 고려하여 부부 모두를 연구대상으로 한 다각적 분석은 이루어지지 못하여 이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정도를 살펴보고 그들의 심리적 복지 수준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사회인구학적변인, 직업변인, 자녀양육관련변인에 따른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를 분석하며, 이러한 변인들이 맞벌이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탐색함으로써 맞벌이부부의 심리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 연구는 그 동안 취업부인 한편으로 치우친 기존의 연구를 부부 양쪽을 다같이 살펴봄으로써 맞벌이부부의 특성을 더 잘 이해하고 부부가 건강한 결혼생활과 직장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위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1.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생활만족도, 우울)의 일반적인 경향은 어떠하며 부부간의 차이가 있는가?
2.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는 관련변인에 따라 차이가 있는가?
3. 맞벌이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영향력은 어떠한가?

II. 이론적 배경

1. 부모역할갈등

1) 부모역할갈등의 개념

부모역할로의 전이는 개인의 생활, 배우자와의 관계, 동료나 친지와와의 관계 등에 변화를 초래함으로써 개인에게 만족스럽고 긍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그러나 한편 자녀양육과 새로운 대인관계에 따르는 경제적, 시간적, 심리적 부담 등으로 인해 부모 개인의 생활만족을 낮추는 압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다(현은강, 1993). 부모역할의 특성으로 볼 때, 부모가 된다는 것은 결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힘들고 중요한 역할전이를 가져올 수 있다. 그러므로 부모역할이란 개인에게 있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압박감도 수반하는 것으로 규정할 수 있다.

자녀를 출산한 취업부인의 경우 특히 친척과의 유대가 없이 핵가족으로만 생활하는 경우에는 자녀양육에 있어 실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 이러한 양육문제 해결을 위해 자녀를 탁아기관에 보내기도 하는데 경제적인 문제, 탁아 가능한 시간적 제한, 거리상의 문제 등이 나타나기도 하며 이에 대한 대안으로 직장 내 탁아가 확대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실정이고 부모와 더불어 통근의 피곤함과 불편함을 함께 극복해야 하는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유영주·김순옥·김경신, 1996).

특히 직장과 아버지 역할간에 시간과 에너지를 배분하는 문제로 긴장과 갈등을 경험하는 아버지들은 스스로를 충실하지

못한 아버지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한경혜, 1997). 이러한 현상에 대해 LaRossa(1988)는 부성에 대한 문화는 빠르게 바뀌고 있으나, 아버지의 실제 행동은 그에 비해 천천히 변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비 동시성의 문제라고 지적한 바 있다. 부성에 대한 가치나 규범은 빠른 속도로 바뀌고 있으나, 아버지 자신의 실제 행동은 그러한 기대에 미치지 못해 죄책감을 느끼는 아버지들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다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갈등이란 부모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긴장이나 부담감, 스트레스와 같은 측면으로 규정하고 측정하였다.

2)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

취업부인은 공식적 탁아체계가 미흡한 상황에서 적절한 자녀 양육의 대안을 찾지 못해 심리적 부담감이 클 뿐만 아니라, 취업부인 자신의 전통적 자녀관 내지 그로 인해 야기되는 탁아에 대한 죄책감이 전반적으로 높다(백경임·강희경, 1995).

선행연구결과를 정리해 보면 맞벌이부부는 다른 역할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높은 갈등을 갖고 있으며 특히 자녀양육 및 교육문제로 어려움을 겪는다고 하였고, 전문직 취업부인의 부모역할 갈등을 다룬 연구에서도 전문직 취업부인들은 다른 역할에서보다 부모역할에서 가장 많은 갈등을 느낀다고 하였다(전영자, 1992). 대부분 취업부인은 어머니역할을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특히 부인이 자녀양육영역에 많은 갈등을 느낀다는 연구(허영숙, 1993)가 일반적이다. 그리고 남편들의 육아참여에 관한 연구에서는 아내의 경제활동 참여로 남편들의 가사노동이나 육아참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남성의 가사노동참여는 매우 제한적이며 성역할 분담에 있어서도 근본적인 변화가 있다기보다는 성역할 경계가 완화되고 있을 뿐이라는 지적도 있다. 남성의 아버지 역할 수행정도가 낮다는 일관된 연구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조선화, 1998; 허선자, 1992).

그러나 취업남성들도 경제적 부양자가 아닌 양육자로서의 아버지 역할을 더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으며(한경혜, 1997) 직업역할보다 가족역할에 더 우선 순위를 둔다고(김소영·옥선화, 2000; 이숙현, 1995; 한경혜, 1998)하였고, 남편과 부인 모두 다른 역할갈등보다 자녀양육에서 역할갈등을 많이 느낀다고 하였다(김경신·김오남, 1996). 대기업에 근무하는 기혼남성들을 심층 면접한 이숙현(1995)의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은 보통 자녀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잘 놀아주는 아버지를 좋은 아버지로 여기고 있으나, 자신의 실제 상황은 이와 다르게 전개되기 때문에 갈등을 느낀다고 한다. 그러므로 맞벌이부부 모두에게 자녀양육은 중요한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현대가족의 역할변화의식에 따라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이 여전히 어머니에게서 높게 나타나는지, 혹은 아버지의 갈등 역시 이에 못지 않게 증가하고 있는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3)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 관련변인

(1) 사회인구학적 변인

교육수준에 따른 부모역할갈등은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부모역할갈등을 많이 겪는다고 하였고, 대졸이상 취업부인이 고졸이하 취업부인 보다 양육스트레스를 더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리진·윤종희, 2000; 현은강, 1993). 그러나 학력이 낮을수록 자녀양육에의 어려움이 많다는 상반된 결과도 있다(이기숙, 1994).

연령에 있어서 조은숙(1999)은 연령이 젊은 취업부인은 어린 자녀양육으로 인해 어려움을 보다 많이 겪는다고 하였다. 남성의 경우는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젊은 연령층 남성의 경우 아버지역할갈등이 높다는 결과(황태순, 1992)와 반면 아버지 역할갈등이 높지 않다는 결과가 있다(서혜영·이숙현, 1999; 한경혜, 1998).

가족 내에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로서의 부담은 가중되는데 자녀의 나이가 많으면 역할적응이 더 쉬워지고(Winfield, 1985), 어린 자녀를 가진 어머니들은 직업인으로서의 역할수행에서 뿐 아니라 어머니로서 역할을 수행하는 데서도 더 높은 긴장상태에 있다고 하였고(박성옥·김정훈, 1995), 부모의 양육과 훈육을 필요로 하는 학령 전 자녀가 있을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부모역할갈등이 더 높게 나타난다고 한다(구혜령, 1991; 임정빈·정혜정, 1986). 하지만 옥경희(1999)의 연구에서는 학령 전 자녀가 있는 경우 부모역할 갈등이 높다는 것이 지지되지 않았다.

여성의 경우 자녀수가 많은 경우에 부모역할 갈등이 더 높게 나타나며(옥경희, 1999; Winfield, 1985), 남성의 경우도 자녀수가 많을수록 자녀양육에 시간과 에너지를 보다 많이 요구받으며(Voydanoff, 1988), 이로 인해 아버지 역할에 대한 만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양미경, 1996에서 재인용).

직업이 전문직의 경우는 직업을 가짐으로써 부모역할을 잘 못해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부모역할을 중시하는 여성일수록 가족 내에서 표준을 적당히 조절하기보다는 '최선을 다해서' 부모역할을 수행하는 데 초점을 둘 가능성이 있다(Mortimer & London, 1984). 그러나 조은숙(1999)의 연구에서는 전문직에 비해 경제적 동기의 비자발적인 취업이 많은 비전문직 취업여성들이 자녀양육의 어려움이 더 크다고 하였다.

이처럼 선행연구결과 사회인구학적 변인에서 부모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이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 학력, 자녀수, 첫 자녀연령, 직업변인 이외에 종교, 소득, 결혼기간 등 기타 변인들을 포괄적으로 적용하여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2) 직업관련변인

맞벌이부부 모두 근무시간에 대한 불만이 부모역할 갈등에 영향을 준다고 하였고(정현숙, 1997), 실제 많은 남성들이 과중

한 업무량과 긴 근무시간을 아버지역할 수행을 방해하는 가장 중요한 변인으로 지적하고 있다(이숙현, 1995).

Kinnunen & Vermulst(1996)의 연구에서는 부모역할 만족과 직업만족간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직업에 만족하고 있는 부인이 부모역할에 더 만족한다는 보고가 있다. 자녀에 대한 걱정은 취업여성과 남성의 직업역할 몰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밝힌 연구(O'Neil & Greenberger, 1994)도 있다.

근무시간 융통성이 부모역할갈등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구혜령, 1991; Guelzow et al., 1991)와 근무조건이 융통적일 때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면에서는 일치치를 보인다(김리진·윤종희, 2000). 그러나 맞벌이 주말부부를 연구한 옥경희(1999)의 연구에서는 지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모역할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관련변인으로 직업만족도, 근무시간 융통성, 근무시간과 이외에도 자녀를 가진 취업여성의 스트레스와 역할갈등 관련변인으로 업무중요도, 직무적응도, 직무능력도, 부인취업동기 등이 등장하고 있으므로(김경신, 1999; 김수연·김득성, 1994) 이를 포함하여 포괄적으로 그 차이를 살펴보고자 한다.

(3) 자녀양육관련변인

맞벌이부부들이 부모역할에 대하여 유난히 부담감을 느끼고 좋은 부모가 아닐수도 있다는 자책감을 안고 살아가는데, 그 이유는 이들이 갖고 있는 훌륭한 부모에 대한 기준 때문이라고 한다(구혜령, 1991; 전영자, 1992). 맞벌이 주말가족을 연구한 옥경희(1999)의 연구에서 전통적인 부모관을 갖고 있거나, 모 취업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는 남성들은 부모역할 갈등을 더 느낀다고 하였다.

여성들이 자녀의 타아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을 할 때 부모역할을 잘 수행한다고(Olson, Frieze & Detlefson, 1990)하였으나, 정현숙(1997)의 연구에서는 부모의 타아환경 만족정도가 부모역할 갈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실제로 양육참여도와 부모역할경험간의 관계를 살펴본 Baruch & Barnett(1986)에 의하면, 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아버지들은 자신을 유능한 부모라고 인식하는 경향이 있으며, 부모로서 느끼는 자신감과 만족도가 커진다고 한다.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부인은 배우자가 자녀양육에 참여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다고 하였다(김리진·윤종희, 200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자녀양육관련변인으로 타아비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 보육방법만족도, 모 취업영향인지, 부모역할관, 보육방법, 남편의 양육참여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심리적 복지

1) 심리적 복지의 개념

심리적 복지(psychological well-being)란 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상태를 측정해 주는 지표로서 다양한 방법으로 측정되었던 생활만족도와 행복감 등의 개념 중 가장 중심적인 개념이다(전영자, 1992). 심리적 복지의 초기 연구에는 주로 정서적인 차원에 초점을 두어 정의 내렸는데, 심리적 복지가 긍정적, 부정적 정서로 이루어져 있다 하면서, 부정적인 정서를 긍정적인 정서와 비교함으로써 얻게 되는 총체적인 판단을 심리적 복지라고 하였다(Diener, 1984에서 재인용).

심리적 복지에 관한 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 경향이 있다. 그 하나는 우울, 분노, 적대감, 공포, 슬픔과 약물남용, 심리적 장애 등과 같은 심리적 역기능을 연구하는 것이고, 두 번째 경향은 긍정적인 심리적 안녕 즉 건강, 긍정적 정서, 행복감, 생활만족도, 자아 존중감과 같은 긍정적인 정신건강의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다(Marks, 1996). 심리적 복지의 이차원 개념은 Veroff(1982)가 실시한 요인분석 작업을 통해서 지지되고 있다.

심리적 복지에 대한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은 대체로 심리적 복지의 하위영역을 생활만족도나 행복감, 사기 등의 긍정적 측면만으로 평가하는 연구(이희정·이숙현, 1995; Kivett, 2000), 우울 등의 부정적 측면만을 측정한 연구(Silverstein & Heller, 1996),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함께 측정한 연구(전영자, 1991)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심리적 복지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측정될 수 있으며 긍정적 측면은 생활만족도, 부정적 측면은 우울로 대표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복지를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로 정의하고, 긍정적 측면에서는 생활만족도를, 부정적 측면에서는 우울을 그 하위 영역으로 선택하여 분석하였으며 생활만족도 점수가 높거나, 우울 점수가 낮을 경우 심리적 복지 수준이 높은 것으로 해석하였다.

2) 맞벌이부부의 심리적 복지

맞벌이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견해는 취업부인이 비취업부인에 비해 결혼만족도 및 생활만족도가 높고 우울을 적게 경험하며(고정자·김갑숙, 1997; Saenz & Lorenz, 1989), 취업부인이 비취업부인 보다 심리적 건강과 자아존중감이 높고 자신의 삶에 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Baruch & Barnett, 1986). 전문직 취업부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우울, 불안 척도를 합한 심리적 디스트레스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전영자, 1997).

김소영 등(2000)의 연구에서는 직업역할이나 아버지역할을 잘하는 남성들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 이는 남성의 심리적 복지에 관한 선행연구들(Marks, 1977; C'Neil & Greenberger, 1994)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그러나 심리적 복지가 낮다는 보고도 있는데 맞벌이부인은 남편에 비해 우울증을 더 많이 경험하고(최규련, 1993) 심리적 복지가 낮다는 결과(이형실, 2001)가 있다. 맞벌이부부는 역할긴

장이나 갈등으로 인해 심리적 신체적 증상과 연관되어 생활만족도가 감소하며 우울증이 증가한다고 한 연구(Keith et al., 1985)도 있다.

Windle 등(1997)의 연구에서는 남편이 부인보다 결혼만족이 약간 높고, 우울이 약간 낮게 나타났으나,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맞벌이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선행연구들의 결과는 일관되게 나타나지 않고 있어 심층적 분석이 필요하다.

3) 맞벌이부부의 심리적 복지 관련변인

(1) 사회인구학적변인

취업부인은 본인소득이 클수록 자존감이 증가하고, 가정내 경제적 기여도가 커져 부부간의 권력관계에서 자원으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심리적 복지 수준이 증가한다고 한다(Spitze, 1988). 또한 소득이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증가하고 우울이 감소한다는 보고(최규련, 1993)가 있다. 남편의 경우도 소득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아지며(Campbell & Rodgers, 1976) 소득이 낮은 남편은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긴장이 발생하여 우울을 많이 겪는다(Ulbrich, 1988)고 하였다.

취업부인에게 미취학 자녀는 심리적 측면에 영향이 있는데 미취학 자녀가 있는 경우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Skinner, 1980)한다고 한다.

교육수준은 높을수록 위기나 우울,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들을 많이 알고 있어(Pealin & Schooler, 1978) 취업부인의 역할긴장, 디스트레스 수준이 낮게 나타났다(고정자·김갑숙, 1997). 남성도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Campbell et al., 1976) 교육수준이 낮은 남편은 전통적인 성역할 태도를 지니고 있어서 우울을 많이 겪는다고 한다(Ulbrich, 1988).

결혼기간은 길수록 남편과 부인 모두 우울이 더 높게 나타났다(Windle & Dumenci, 1997).

전문직 취업부인은 불안과 우울 성향이 다른 직종에 비해 높고, 남성은 서비스, 생산직 근로자에서 우울이 높았다(김영철·정향균·이시형, 1989). 직종에 따라서는 전문직일 경우 삶의 질이 높고(이현송, 1996), 생산직과 사무직 취업여성을 연구한 조희금(1999)의 연구에서는 사무직 여성의 생활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2) 직업관련변인

취업부인이 가정경제를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취업했다고 지각할수록 직업에 대한 애착이나 만족도가 낮아 결과적으로 심리적 복지 수준이 저하된다고 한다(Keith & Schafer, 1983). 또한 경제외적 이유로 취업할 때 결혼만족도가 높고 우울증이 낮게 나타났고(최규련, 1993), 가정생활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조희금, 1999). 고정자(1998)의 연구에서도 맞벌이 부인의 취업

동기가 자아발전인 경우 삶의 질이 높게 나타났다.

맞벌이부부 모두에 있어서 직장근무시간에 불만이 많고(정현숙, 1997), 직장근무시간의 양이 많을수록 우울증이 증가하며(Keith & Schafer, 1983), 생활만족도와 갈등 및 부적응 증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이연숙 외 3인, 1991), 이는 심리적 디스트레스와 직결된다는 보고(Marks, 1977)가 있다. 한편 근무시간의 양도 중요하지만 융통성이 심리적 복지에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데(Voydanoff, 1988), 근무시간 융통성은 가족역할과 직업역할을 병행해야 하는 취업부인에게 있어 가장 중요한 직장 조건이라고 언급되며(박성욱·김정훈, 1995). 남편의 경우도 직업에서의 융통성이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서정아·한경혜, 1998).

Thomas 등(1984)은 직업만족은 취업여성의 자부심과 생활만족에 기여하며 따라서 결혼의 질을 높여준다고 하였다. 직업에 만족하는 경우 결혼만족이나 생활만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김용희·제미경, 1987; 최규련, 1993), 취업여성으로서의 자부심과 생활만족에 기여하며(Thomas et al., 1984), 삶의 질에 만족한다는(고정자, 1998) 것이다. 또한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서정아·한경혜, 1998; Kinnunen et al., 1996)도 있다.

(3) 자녀양육관련변인

평등적 부모역할 태도를 지닌 맞벌이부부는 우울증을 적게 경험한다(Spitze, 1988; Ulbrich, 1988)고 한다.

남편의 자녀양육에 대한 참여도는 취업부인의 심리적 스트레스를 낮추는데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oss & Mirowsky, 1988), 남편의 경우도 자신의 아버지 역할 수행정도가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감이 높게 나타났다(조원지·한경혜, 2001).

맞벌이 가족의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령전기 자녀를 가진 부모들은 절대적인 양육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자녀들의 요구에 대처하지 못하는데서 오는 심리적 갈등을 느끼며 탁아환경에 대한 만족도 여부가 새로운 긴장원이 될 수 있다고 하였고 남편의 경우 현재 자녀의 탁아환경에 만족할 때 결혼만족도를 높게 인식하였다(정현숙, 1997). 맞벌이부부의 여성의 경우도 탁아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결을 할 때 삶에 대한 만족이 컸다(Olson et al., 1990).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은 경제적 스트레스를 초래하여 부모의 심리적 복지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한 결과(Ross, 1995)도 있다.

4)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

외국의 많은 연구들은 부모의 복지와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부모역할에서의 긴장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준다(Ross & Mirowsky, 1988). 즉 부모역할에서의 긴장감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와 개인의 복지감이 낮아지며 자녀 양육의

책임이 있는 경우 직업과 가족역할간에 긴장과 갈등을 느끼고, 결혼적용이 낮아진다고 한다(Houseknecht & Macke, 1981).

취업부인의 자아정체감과 심리적 복지 수준을 결정짓는 주요역할로 배우자역할과 어머니 역할이 강조되며(Stryker & Serpe, 1982), 어머니 역할에서의 만족이나 보상이 클수록 전반적인 생활만족이나 기쁨이 증가한다(Umberson, 1989). 어머니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는 만큼 취업부인의 어머니역할 수행에 있어 불만, 스트레스 등이 크고(김명자, 1981), 이는 디스트레스 수준과 우울증, 불안의 수준을 증가시킨다(이희정·이숙현, 1995).

맞벌이부부의 역할긴장 및 갈등은 결혼만족도의 감소(임정민·정혜정, 1986)와 생활만족도의 감소(이연숙 외 3인, 1991), 우울증의 증가(Ulbrich, 1988) 요인으로 작용한다.

전영자(1997)의 연구에서도 부모역할 갈등과 심리적 디스트레스간에 유의한 상관이 있다고 했는데 즉 부모역할 갈등이 높을 때 심리적 디스트레스가 높았고, 자아존중감이 낮았다. 부모됨은 개인의 심리적 복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부모역할에 대한 만족도는 성인의 전반적인 생활만족도와 생활양식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인으로 부각된다(Guidubal & Cleminshaw, 1989).

경로분석을 통해 일-아버지 역할갈등이 가정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이동열(1995)의 연구에서는 직장과 가정 영

역의 상충된 요구 사이에서 경험하는 역할 간 갈등은 남성이 가정생활에서 느끼는 즐거움이나 만족감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요인이 된다고 한다. 따라서 맞벌이부부 모두에게 직업과 자녀양육 등의 가족역할간에 긴장과 갈등이 따르고, 결혼적용이 낮아질 수 있다(Houseknecht & Macke, 1981).

그러나 부모역할갈등에 있어 부부간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남성은 부모역할보다 직업역할갈등이 더 크고 여성은 부모역할이 직업역할보다 심리적 복지에 더 작용한다는 연구(Wethington & Kessler, 1989)가 있다. Windle 등(1997)의 연구에서는 맞벌이부부 모두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낮게 나타났으나, 남편은 직업 스트레스가 우울에 더 상관이 있었고, 부인은 부모역할 스트레스가 우울과 더 높은 수준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반면 부모역할이 심리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이형실, 2001)가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부모역할의 긍정적인 경험과 부담, 책임이 상쇄하기 때문에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긍정적, 부정적 측면에 미치는 변수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히 판단하기 위해 사회인구학적변인, 직업변인, 자녀양육관련변인에 따른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표 1] 척도구성 및 신뢰도

구분	변인	문항수	점수범위	비고	출처	신뢰도	
	부부 사회인구학적 특성	8		연령, 결혼기간, 학력, 종교, 소득, 자녀수, 첫자녀연령, 직업			
직업변인	직업만족도	3	5-15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Yankelovich(1977), 현은강(1993)	.78	
	근무시간용통성	3	5-15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서혜영(1998), 이기영·구혜령(1992), 조은숙(1997)	.78	
	그 외 변인	5		근무시간, 업무중요도, 직무적응도, 직무능력도, 부인취업동기			
자녀양육관련변인	모 취업의 영향인지	5	5-25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한국가족학연구회(1995), 옥경희(1999)	.81	
	부모역할관(평등성)*	5	5-25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양명숙(1993)	.82	
	그 외 변인	4		보육방법, 탁아비 부담정도, 보육방법만족도, 남편의 양육참여도			
주요변인	부모역할갈등	11	11-55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현은강·조목희(1994), Baruch&Barnett(1986), 옥경희(1999), 서혜영(1998)	.84	
	심리적 복지	생활만족도	10	10-50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Olson&Barner(1982), 김오남(1998)	.90
		우울	10	10-50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매우 그렇다' 5점	Radloff(1977)	.90

* 부모역할관: 바람직한 부모역할수행에 대해 부모가 지니는 가치관으로 평등성이란 자녀양육이 아버지와 어머니의 평등적 역할분담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진보적 가치관을 뜻한다.

III. 연구방법

1. 조사대상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남편의 경우, 연령은 33~37세가 57.6%로 가장 많았고, 교육수준은 4년제 대졸이 65.6%로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연령은 28~32세가 53.6%, 33~37세가 42.9%로 37세 이하가 대부분이었고, 교육수준은 고졸과 전문대졸은 비슷하였고, 4년제 대졸이 42.9%로 가장 많았다.

평균소득은 남편의 경우 150~199만원이 36.2%로 가장 많았고, 부인의 경우 100~149만원이 37.5%로 많았고, 종교는 남편의 경우 없는 집단이 57.6%로 더 많았고, 부인의 경우 있는 경우가 61.2%로 나타났다. 직업은 남편, 아내 모두 사무직이 각각 55.4%, 46.4%로 많은 수를 차지하였고, 자녀수는 2명이 58.9%로 가장 많았고, 결혼기간은 4~6년이 37.5%로 가장 많았고, 가족형태는 핵가족이 85.7%를 차지하였다.

2. 조사도구

본 연구는 자기보고식으로 답하는 구조화된 질문지를 사용하였으며, 부부를 분석단위로 하였다. 구성은 사회인구학적 변인, 직업변인, 자녀양육관련변인, 부모역할 갈등, 심리적 복지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각 척도의 구체적인 구성방법과 내용은 [표 1]과 같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광주광역시에 거주하면서 취학 전 자녀(첫 자녀 연령이 만6세 이하)를 둔 맞벌이 부부를 대상으로, 조사대상자는 거주지역을 고려하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종일반 아동 중 부모가 맞벌이인 아동을 대상으로 각 부모에게 전달하도록 하였고(120쌍), 각 직장의 맞벌이부부 중에서 임의 표집한 180쌍, 총 300쌍(6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역성을 고려하여 4개구(동구, 서구, 북구, 광산구)로 나누어 구성비가 고루 분포되도록 하였다. 본 조사는 2002년 6월 1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였고, 300쌍을 배부하였으나 이중 265쌍이 회수되었고, 내용이 부실하거나 남편이나 부인 중 한쪽이 응답하지 않은 41쌍을 제외한 224쌍(448명)이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Windows용 SPSS 10.0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각 측정도구들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Cronbach's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를 파악하기 위해 빈도분석과 기초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부부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paired t-test, 관련변인에 따른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T-test, 일원분산분석과 사후검정으로 Duncan의 다중비교검증을 실시하였다.

넷째, 각 변인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과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해석

1.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과 부부간 차이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의 경향과 차이는 [표 2]와 같다.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의 점수는 남편의 경우 30.59로 중간점수보다 낮으며, 부인의 경우는 33.25로서 중간점수인 33점에 가깝게 나타나, 부인이 남편보다는 부모역할갈등이 조금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가족을 다룬 선행연구(이형실, 2001; Voydanoff, 1988)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인다. 이는 대개 여성들이 남성보다 자녀양육에 더 많이 관여하므로 자녀들을 책임지는 일로 인해서 남편들보다 자신의 생활을 조절해야 한다거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부모역할을 남편들보다 중요시 여기므로 역할에 대한 갈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심리적 복지의 점수는 먼저 생활만족도의 평균점수를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는 34.96으로 중간점수인 30보다 약간 높으며, 부인의 경우도 34.35로 부부간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고, 우울의 경우는 남편 26.60, 부인 27.58로 부인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부부 모두 중간점수보다는 낮게 나타나 맞벌이부부의 심리적 복지가 높은 편임을 알 수 있다.

[표 2]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과 차이

변인	남편	부인	paired-t	
	M (SD)	M (SD)		
부모역할갈등	30.59(6.90)	33.25(7.19)	-5.09 ***	
심리적 복지	생활만족도	34.96(5.58)	34.35(6.00)	1.66
	우울	26.60(6.60)	27.58(7.11)	-2.05 *

* p<.05 *** p<.001

2. 관련변인에 따른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 갈등과 심리적 복지

1) 관련변인에 따른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역할갈등

[표 3]에 보면, 연령, 결혼기간, 학력, 종교, 소득, 자녀수, 첫 자녀연령, 직업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만을 결과표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남편의 경우 소득은 249만원 이하인 집단, 학력은 4년제 대졸이하 집단이 높게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 고졸이 가장 높았고, 대학원 이상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 종교는 없는 집단, 첫 자녀연령은 2~4세인 경우가 부모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에 소득은 남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249만원이 하인 집단, 직업은 사무직, 첫 자녀연령은 2~4세, 결혼기간은 4~6년인 경우 부모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표 3]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부모역할갈등 (N=224)

변인	구분	N	남편			N	부인		
			M	SD	D		M	SD	D
소득	149만원이하	60	31.43	7.47	A	140	32.79	6.86	A
	150~249	116	31.59	6.28	A	70	34.86	7.26	A
	250만원이상	48	27.13	6.59	B	14	27.79	7.40	B
	F		8.22 ***			6.34 **			
학력	고졸	23	32.87	8.00	A	56	31.86	6.99	
	전문대졸	33	30.67	7.67	A	55	33.38	7.36	
	4년제대졸	147	30.86	6.29	A	96	33.72	7.11	
	대학원이상	21	26.10	7.01	B	17	33.06	7.83	
	F		4.05 **			.82			
종교	종교없음	129	31.38	6.56		87	34.09	6.23	
	종교있음	95	29.52	7.22		137	32.50	7.69	
	T		2.01*			1.70			
직업	전문직	45	28.69	7.01		49	32.10	7.40	AB
	사무직	124	30.66	6.72		104	34.48	7.45	A
	비전문직	55	31.98	6.94		71	31.38	6.34	B
	F		2.88			3.58 *			
첫 자녀 연령	0~1세	45	28.22	7.31	B	45	31.76	6.57	B
	2~4세	98	31.78	6.34	A	98	34.51	6.68	A
	5~6세	81	30.47	7.04	AB	81	32.38	7.83	B
	F		4.23 *			6.28 **			
결혼 기간	1~3년	38	28.66	6.94		28	32.18	7.02	B
	4~6년	84	31.49	6.71		84	34.46	6.41	A
	7~9년	78	30.74	7.12		78	32.70	7.31	AB
	10년이상	24	29.96	6.49		24	31.92	8.93	C
	F		1.57			3.03 *			

* p<.05 ** p<.01 *** p<.001

(2) 직업변인에 따른 부모역할갈등

[표 4]에 보면, 직업변인은 직업만족도, 근무시간용통성, 평균 근무시간, 업무중요도, 직무적응도, 직무능력도, 부인취업동기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이 중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만 결과표에 제시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근무시간용통성이 낮은 집단, 직업만족도가 중간이하 집단, 업무중요도와 직무적응도가 중간이하 집단, 그리고 직무능력도가 중간이하 집단이 부모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 직업만족도가 중간이하 집단, 직무적응도가 중간이하 집단의 부모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근무시간용통성이 부모역할갈등과 관련이 없다는 것은 옥경희(1999)의 연구와 일치하였다. 이는 대상들의 직장

이 출퇴근 시간이 정확한 사무직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표 4] 직업변인에 따른 부모역할갈등 (N=224)

변인	구분	N	남편			N	부인		
			M	SD	D		M	SE	D
근무 시간 용통성	낮은집단	42	33.33	6.58	A	32	34.16	6.70	
	중간집단	133	30.29	6.26	B	140	33.31	7.10	
	높은집단	49	29.06	8.19	B	52	31.96	7.68	
	F		4.82 **			1.06			
직업 만족도	낮은집단	63	32.21	6.87	A	48	35.98	6.83	A
	중간집단	109	31.49	6.01	A	88	33.70	6.20	A
	높은집단	52	26.75	7.36	B	88	31.09	7.75	B
	F		11.74 ***			8.06 ***			
업무 중요도	낮은집단	76	32.51	5.54	A	17	34.59	4.05	
	중간집단	99	30.43	6.78	A	77	34.04	6.94	
	높은집단	49	27.92	8.13	B	130	32.38	7.58	
	F		7.02 ***			1.67			
직무 적응도	낮은집단	72	32.53	5.82	A	67	34.06	5.64	A
	중간집단	114	30.61	6.75	A	131	33.35	7.20	A
	높은집단	38	26.84	7.79	B	26	29.92	9.73	B
	F		9.07 ***			3.27 *			
직무 능력도	낮은집단	64	32.45	5.34	A	95	34.25	5.19	
	중간집단	112	31.12	6.62	A	107	32.53	8.08	
	높은집단	48	26.88	8.03	B	22	31.09	9.30	
	T		10.44 ***			2.44			

* p<.05 ** p<.01 *** p<.001

집단분류기준: 낮은집단 < M - SD
M - SD ≤ 중간집단 ≤ M + SD
높은집단 < M + SD

(3) 자녀양육관련변인에 따른 부모역할갈등

[표 5]에 보면, 자녀양육관련변인은 모 취업영향인지, 부모역할관, 보육방법, 탁아비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 보육방법만족도, 남편의 양육참여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만 결과표에 제시되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남편의 경우 보육방법만족도가 중간이하 집단, 자녀양육참여도가 낮은 집단, 탁아비에 부담을 느끼는 정도가 높은 집단, 모 취업인지가 부정적인 집단, 부모역할관이 보통이하인 집단의 부모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에는 보육방법만족도가 낮은 집단의 부모역할갈등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여성들이 자녀의 탁아에 대해 만족스러운 해결을 할 때 부모역할을 잘 수행한다고 한 선행연구의 결과(Olson et al., 1990)와 일치한다. 그리고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낮은 집단의 부모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배우자가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양육스트레스가 감소한다는 결과(김리진·윤종희, 2000)와 일치한다. 또한 탁아비 부담정도가 높은 집단, 어머니의 취업이 자녀에게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집단의 부모역할갈등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인이 부모역할을 수행하면서 겪는 어려움이나 부담감

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옥경희(1999)의 결과를 지지한다.

[표 5] 자녀양육관련변인에 따른 부모역할갈등 (N=224)

변인	구분	N	남편			N	부인		
			M	SD	D		M	SD	D
보육방법 만족도	낮은집단	28	34.18	7.80	A	36	37.44	6.73	A
	중간집단	67	32.42	6.50	A	58	33.21	5.69	B
	높은집단	129	28.86	6.37	B	130	31.88	7.48	B
	F		11.13 ***			9.05 ***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도	낮은집단	38	34.24	5.79	A	51	35.29	6.23	A
	중간집단	80	31.46	5.90	B	67	33.69	6.91	AB
	높은집단	106	28.62	7.33	C	106	31.72	7.53	B
	F		11.21 ***			4.71 **			
탁아비 부담정도	낮은집단	26	28.31	6.72	B	62	31.65	8.06	B
	중간집단	63	28.16	6.98	B	111	33.06	6.50	AB
	높은집단	135	32.16	6.47	A	51	35.24	7.17	A
	F		9.53 ***			3.59 *			
모 취업 영향인지	긍정적집단	66	26.14	6.31	C	63	29.03	7.17	C
	보통인집단	83	31.47	5.76	B	91	33.42	5.92	B
	부정적집단	75	33.53	6.65	A	70	36.56	6.93	A
	F		26.05 ***			21.61 ***			
부모 역할관	불평등한집단	44	32.82	5.00	A	69	33.96	6.76	
	보통인집단	105	31.55	5.77	A	49	31.82	6.28	
	평등한집단	75	27.93	8.40	B	106	33.27	7.81	
	F		9.57 ***			1.29			

* p<.05 ** p<.01 *** p<.001

2 관련변인에 따른 맞벌이부부의 심리적 복지

- (.) 관련변인에 따른 맞벌이부부의 생활만족도
- (1)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표 6]에 보면, 남편의 경우 소득은 250만원이상인 집단, 직업은 전문직, 학력은 대학원이상, 종교는 있는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자녀수가 남편의 심리적 복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은 조원지 등(2001)의 연구와 일치한다. 부인의 경우 소득은 남편의 경우와 같이 250만원이상인 집단, 학력은 대학원 이상이 생활만족도가 높았고, 고졸인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낮았다. 종교는 있는 집단, 결혼기간은 1~3년인 집단, 자녀수는 2명 이하인 경우보다 3명인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부부 모두에서 유의한 변인은 소득, 학력, 종교로 소득이 높을수록 심리적 복지수준이 증가한다는 결과(Spitze, 1988; Thompson et al., 1989)와 일치하며, 학력이 높은 집단은 스트레스에 대한 대처방안을 많이 알고 있어서 갈등을 잘 해결하고, 종교를 가지고 있는 집단은 긍정적인 갈등관리방법을 취하므로 생활만족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표 6]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N=224)

변인	구분	N	남편			N	부인		
			M	SD	D		M	SD	D
소득	149만원이하	60	33.97	5.14	B	140	33.54	5.98	B
	150~249	116	34.38	5.45	B	70	35.21	5.34	B
	250만원이상	48	37.63	5.70	A	14	38.79	7.07	A
	F		7.46 ***			6.09 **			
학력	고졸	23	32.00	5.05	C	56	32.45	6.92	C
	전문대졸	33	34.70	6.12	BC	55	35.36	4.57	AB
	4년제 대졸	147	35.04	5.41	B	96	34.43	5.57	BC
	대학원이상	21	38.10	4.99	A	17	37.47	7.37	A
	F		4.62 **			4.11 **			
종교	종교없음	129	33.85	5.36		87	33.29	5.90	
	종교있음	95	36.47	5.54		137	35.09	5.97	
	T		-3.56***			-2.22*			
직업	전문직	45	36.53	6.33	A	49	35.84	5.52	
	사무직	124	34.91	5.50	AB	104	34.29	5.99	
	비전문직	55	33.80	4.85	B	71	33.53	6.19	
	F		3.04 *			2.19			
결혼기간	1~3년	38	36.11	5.08		38	36.29	6.39	A
	4~6년	84	33.92	5.24		84	33.65	5.42	BC
	7~9년	78	35.42	6.32		78	34.85	5.51	AB
	10년이상	24	35.33	4.53		24	32.50	7.67	C
	F		1.75			5.45 ***			
자녀수	1명	78	35.27	5.60		78	26.83	7.24	B
	2명	132	34.99	5.67		132	27.55	6.85	B
	3명	14	33.00	4.52		14	31.93	7.41	A
	F		.99			6.25 **			

* p<.05 ** p<.01 *** p<.001

[표 7] 직업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N=224)

변인	구분	N	남편			N	부인		
			M	SD	D		M	SD	D
근무시간 유효성	낮은집단	42	32.67	4.51	B	32	33.75	5.56	
	중간집단	133	34.31	5.22	B	140	34.37	5.93	
	높은집단	49	38.71	5.67	A	52	34.85	6.48	
	F		17.90 ***			.33			
직업만족도	낮은집단	63	31.79	4.52	C	48	31.50	6.12	B
	중간집단	109	34.27	4.16	B	88	33.14	5.25	B
	높은집단	52	40.27	5.70	A	88	37.23	5.46	A
	F		49.56 ***			20.39 ***			
업무중요도	낮은집단	76	32.36	3.86	C	17	33.00	4.68	
	중간집단	99	35.44	5.10	B	77	33.29	5.58	
	높은집단	49	38.04	6.88	A	130	35.23	6.27	
	F		18.68 ***			3.10 *			
직무적응도	낮은집단	72	32.26	4.87	C	67	33.34	4.82	B
	중간집단	114	35.29	4.22	B	131	34.24	6.34	B
	높은집단	38	39.11	7.46	A	26	37.88	5.83	A
	F		22.82 ***			5.72 **			
직무능력도	낮은집단	64	32.84	4.61	C	95	33.06	5.23	B
	중간집단	112	34.72	4.63	B	107	34.61	6.14	B
	높은집단	48	38.35	7.11	A	22	39.09	6.13	A
	T		15.33 ***			9.90 ***			
부인취업 동기	가정경제에도움					118	32.78	5.85	B
	자기성취발전					88	36.26	5.51	A
	시간활용					18	35.83	6.46	A
	F					9.79 ***			

* p<.05 ** p<.01 *** p<.001

② 직업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표 7]에 보면, 남편의 경우 근무시간응통성이 높은 집단, 직업만족도가 높은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높았다. 이는 근무시간응통성이 높고, 직업에 만족하는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최규련, 1993)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업무중요도가 높은 집단, 직무적응도가 높은 집단, 직무능력이 높은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에는 직업만족도가 높은 집단, 업무중요도가 높은 집단, 직무적응도가 높은 집단, 직무능력이 높다고 한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취업동기는 자기성취발전과 시간활용이라고 한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경제적 동기로 취업한 경우 생활만족도가 낮게 나타나고(Ferree, 1984), 비경제적 동기로 취업한 경우 생활만족도가 높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조희금, 1999)와 일치한다.

③ 자녀양육관련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표 8]에 보면, 남편의 경우 보육방법만족도가 높은 집단, 타아비 부담정도가 낮은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높았는데, 이는 소득과도 관련된 결과로 생각된다. 자녀양육참여도는 중간이상 집단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에는 보육단, 모 취업영향이 긍정적인 집단, 부모역할관이 평등적인

방법만족도가 중간이상 집단,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은 집단, 모 취업영향인지가 보통이거나 긍정적인 집단, 보육방법은 타인의 가정에 아이를 맡기는 집단이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부부 모두에서 유의한 변인은 보육방법만족도,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도, 모 취업영향인지였다. 이는 타아에 만족스러운 해결을 할 때 삶의 만족이 크다는 연구(Olson et al., 1990),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낮춘다는 연구(Ross & Mirowsky, 1988)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2) 관련변인에 따른 맞벌이부부의 우울

①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우울

[표 9]에 보면, 남편의 경우 소득이 250만원이상인 집단, 학력은 대학원 이상인 집단, 직업은 전문직이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자녀의 연령이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은 남편의 경우 자녀가 취학 전에는 실제 양육면에서 아버지보다 어머니가 더 중요하다고 지각하고 남성은 아버지로 적응해 가는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져 여성보다 심리적 갈등을 덜 경험한다는 황정해 등(2000)의 연구결과와 관련이 있다. 부인의 경우 소득은 250만원 이상인 집단, 학력은 대학원 이상인 집단, 직업은 전문직, 첫 자녀연령은 0~1세인 집단, 결혼기간은 1~3년 집단이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학력이 높은 집단이 우울을 적게 느끼는 이유는 학력이 높을수록 우울, 스트레스에

[표 8] 자녀양육관련변인에 따른 생활만족도 (N=224)

변인	구분	N	남편			N	부인		
			M	SD	D		M	SD	D
보육 방법 만족도	낮은집단	28	30.79	4.95	C	36	31.42	7.32	B
	중간집단	67	33.22	4.70	B	58	33.60	5.38	A
	높은집단	129	36.78	5.38	A	130	35.57	5.53	A
	F		21.14 ***			7.91 ***			
타아비 부담 정도	낮은집단	26	37.92	6.76	A	62	34.89	6.23	A
	중간집단	63	35.52	5.51	B	111	34.49	5.33	B
	높은집단	135	34.13	5.16	B	51	33.59	7.03	B
	F		5.70 **			.68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도	낮은집단	38	31.92	5.13	B	51	31.84	6.45	C
	중간집단	80	34.78	5.42	A	67	33.84	5.53	B
	높은집단	106	36.20	5.46	A	106	35.97	5.60	A
	F		8.87 ***			9.22 ***			
모 취업 영향 인지	긍정적집단	66	37.24	5.91	A	63	35.27	7.20	A
	보통인집단	83	34.58	5.37	B	91	35.11	5.44	A
	부정적집단	75	33.39	4.88	B	70	32.67	5.15	B
	F		9.35 ***			4.34 *			
보육 방법	자가보육	37	34.92	5.55		37	33.03	6.81	BC
	타인가정	80	35.14	6.04		80	35.21	5.67	A
	직장내 시설	16	35.25	6.10		16	32.38	5.34	C
	집근처 시설	91	34.78	5.15		91	34.58	5.88	AB
	F		.07			3.62*			
부모 역할관	불평등한집단	44	32.73	4.46	B	69	33.62	4.74	
	보통인집단	105	34.51	4.65	B	49	34.78	4.87	
	평등한집단	75	36.91	6.69	A	106	34.72	7.09	
	F		9.03 ***			.82			

* p<.05 ** p<.01 *** p<.001

[표 9] 사회인구학적 변인에 따른 우울 (N=224)

변인	구분	N	남편			N	부인		
			M	SD	D		M	SD	D
소득	149만원이하	60	28.15	6.49	A	140	28.61	6.72	A
	150~249	116	27.19	6.13	A	70	26.57	7.27	A
	250만원이상	48	23.23	6.81	B	14	22.29	7.55	B
	F		.99 ***			6.33 **			
학력	고졸	23	30.30	6.15	A	56	30.02	7.04	A
	전문대졸	33	28.00	6.09	AB	55	27.05	7.28	AB
	4년제 대졸	147	26.65	5.95	B	96	26.78	6.57	AB
	대학원이상	21	19.95	7.77	C	17	25.71	8.40	B
	F		11.43 ***			3.18 *			
직업	전문직	45	24.16	7.33	C	49	25.49	6.93	B
	사무직	124	26.48	6.25	B	104	27.76	7.26	AB
	비전문직	55	28.87	6.05	A	71	28.78	6.79	A
	T		6.70 ***			3.23 *			
첫 자녀 연령	0~1세	45	25.31	6.47		45	25.71	7.28	B
	2~4세	98	27.66	5.95		98	28.56	6.50	A
	5~6세	81	26.02	7.26		81	27.42	7.52	A
	F		2.47			5.11 **			
결혼 기간	1~3년	38	25.79	6.69		38	25.37	7.14	B
	4~6년	84	27.25	5.76		84	28.33	6.57	A
	7~9년	78	26.71	6.71		78	27.52	6.72	A
	10년이상	24	25.25	8.65		24	28.63	9.23	A
	F		.80			3.48 *			

* p<.05 ** p<.01 *** p<.001

대처하는 방안을 많이 알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리고 자녀연령이 어릴수록 스트레스와 긴장을 경험하고, 결혼기간이 길어질수록 자녀가 생기고 결혼생활에서의 역할이 증가하므로 우울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부 모두에서 유의한 변인은 소득, 학력, 직업으로 이는 소득이 높을수록 우울이 감소한다는 연구(최규련, 1993)와 교육수준이 낮은 남편이 우울을 많이 겪는다고 한 연구(Ulbrich, 1988), 남성은 비전문직 즉, 서비스·생산직이 우울을 많이 겪는다는 연구(김영철 외2인, 1989)와 일치한다.

② 직업변인에 따른 우울

[표 10]에 보면, 남편의 경우 근무시간 융통성이 높은 집단, 직업만족도가 높은 집단, 업무중요도가 높은 집단, 직무적응도가 높은 집단, 직무능력도가 높은 집단의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에는 직업만족도가 높은 집단, 근무시간은 8시간인 집단이 우울이 낮았다. 이는 취업부인의 근무시간이 많을수록 우울이 증가한다는 결과(Keith & Schafer, 1983)와 일

[표 10] 직업변인에 따른 우울 (N=224)

변인	구분	N	남편			N	부인		
			M	SD	D		M	SD	D
근무 시간 융통성	낮은집단	42	28.60	6.09	A	32	28.00	6.42	
	중간집단	133	26.75	6.08	AB	140	27.05	7.17	
	높은집단	49	24.47	7.78	B	52	28.73	7.35	
	F		4.66 **			1.13			
직업 만족도	낮은집단	63	28.89	5.38	A	48	30.52	6.58	A
	중간집단	109	27.28	6.31	A	88	28.57	6.59	A
	높은집단	52	22.40	6.74	B	88	24.98	7.09	B
	F		49.56 ***			11.90 ***			
근무 시간	8시간미만	10	26.30	8.86		47	29.62	5.98	AB
	8시간	57	26.09	6.73		80	25.91	6.63	B
	8시~10시간	123	26.74	6.34		89	27.72	7.67	AB
	10시간초과	34	27.03	6.81		8	30.63	8.45	A
	F		.19			3.35 *			
업무 중요도	낮은집단	76	28.39	5.14	A	17	28.82	4.28	A
	중간집단	99	26.24	7.14	AB	77	29.32	6.51	A
	높은집단	49	24.53	6.86	B	130	26.38	7.53	B
	F		18.68 ***			4.58 *			
직무 적응도	낮은집단	72	28.58	5.39	A	67	29.81	5.81	A
	중간집단	114	26.93	6.51	B	131	27.21	7.11	A
	높은집단	38	21.84	6.78	C	26	23.69	8.36	B
	F		14.94 ***			7.79 ***			
직무 능력도	낮은집단	64	28.56	5.43	A	95	29.62	5.87	A
	중간집단	112	26.96	6.61	A	107	26.48	7.63	B
	높은집단	48	23.13	6.78	B	22	24.09	7.16	B
	T		10.48 ***			8.36 ***			
부인 취업 동기	가정경제에 도움					118	28.85	6.38	A
	자기성취발전					88	25.58	7.59	B
	시간활용					18	29.00	7.44	A
	F					5.96 **			

* p<.05 ** p<.01 *** p<.001

치하는 것이지만 본 연구에서는 8시간 미만의 여성의 경우도 우울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시간제 노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로 직장의 안정성 문제와 연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업무중요도가 높은 집단, 직무적응도가 높은 집단, 직무능력이 중간 이상 집단이 우울이 낮게 나타났고, 취업동기가 자기성취발전인 경우에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즉 원하지 않는 직장생활 등이 우울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부부 모두에서 유의한 변인은 직업만족도, 업무중요도, 직무적응도, 직무능력도로 직업만족이 심리적 복지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Kinnunen et al., 1996; 서정아·한경혜, 1998)와 일치하는 결과이고 취업주부의 스트레스 관련변인인 업무중요, 직무적응, 직무능력이 맞벌이부부 모두의 우울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③ 자녀양육관련변인에 따른 우울

[표 11]에 보면, 남편은 보육방법만족도가 높은 집단,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은 집단, 모 취업영향인지가 긍정적인 집단, 부모역할관이 평등한 집단의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부인의 경우에는 보육방법만족도가 높은 집단,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도가 높은 집단, 모 취업영향인지가 긍정적인 집단의 우울이 낮게 나타났다. 부부 모두에서 유의한 변인은 보육방법만족도,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도, 모 취업영향인지로 남편의 자녀양육참여가 심리적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 기여한다는 연구(Ross & Mirowsky, 1988)와 일치하는 결과이고, 맞벌이부부 가족에서조차 여성은 남성보다 부모역할을 수행하는데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쏟는데 이럴 때 남편이 자녀양육에 참여하는 것이 심리적 복지에 중요한 요인이라 생각된다.

[표 11] 자녀양육관련변인에 따른 우울 (N=224)

변인	구분	N	남편			N	부인		
			M	SD	D		M	SD	D
보육 방법 만족도	낮은집단	28	29.21	6.28	A	36	30.08	9.45	A
	중간집단	67	28.01	7.28	A	58	28.12	5.31	AB
	높은집단	129	25.29	5.99	B	130	26.64	6.93	B
	F		6.58 **			3.62 *			
남편의 자녀 양육 참여도	낮은집단	38	28.74	5.29	A	51	30.51	6.42	A
	중간집단	80	26.99	6.80	AB	67	28.30	6.69	A
	높은집단	106	25.54	6.70	B	106	25.71	7.19	B
	F		3.59 *			8.93 ***			
모취업 영향 인지	긍정적집단	66	24.06	6.29	C	63	25.19	8.41	B
	보통인집단	83	26.36	6.46	B	91	27.78	6.08	A
	부정적집단	75	29.09	6.17	A	70	29.46	6.56	A
	F		11.25 ***			6.31 **			
부모 역할관	불평등한집단	44	27.55	5.28	A	69	28.65	5.08	
	보통인집단	105	27.53	5.40	A	49	27.63	6.34	
	평등한집단	75	24.73	8.29	B	106	26.85	8.43	
	F		4.65 **			1.35			

* p<.05 ** p<.01 *** p<.001

3. 맞벌이 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대한 변인들의 영향력

관련변인과 부모역할갈등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표12]. 본 연구에서 선행되어진 분석에서 생활만족도와 우울에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변인들을 중심으로 회귀식을 구성하였고, Durbin Watson계수(DW)를 산출한 결과 1.89 - 2.08의 범위로 2에 근접하고 있어 잔차간 자기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져 회귀가정은 만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생활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부 모두 직업만족도, 학력, 남편의 양육참여도는 정적인 영향을, 부모역할갈등은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었으며, 남편의 경우 보육방법만족도, 부인의 경우 취업동기가 정적으로 영향력 있는 변수였다. 이러한 변인들이 생활만족도의 각각 55%, 41%를 설명하였다. 즉 직업만족도가 높을수록, 학력이 높을수록, 남편이 자녀양육에 많이 참여할수록, 부모역할갈등이 낮을수록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부부에게는 무엇보다 자신의 직업에 만족하고, 부부가 서로의 역할을 도와주고 긍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생활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함을 알 수 있게 한다. 또한 학력이 생활만족도에 영향력 있는 변인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학력이 높은 경우 스트레스에 잘 대처하고 서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우울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을 살펴보면, 부부 모두에서 부모역할갈등은 정적으로, 직업만족도는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이었으며, 남편의 경우 학력, 부인의 경우 소득과 남편의 양육참여도가 부적으로 영향력 있는 변수였다. 이러한 변인들이 우울의 각각 42%, 37%를 설명하였다. 즉 부모역할갈등이 높을수록, 직업만족도가 낮을수록 우울이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에게 부모역할갈등을 줄이는 노력과 직업생활의 만족이 우울에 중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부인의 경우 맞벌이를 통한 소득의 증가와 남편이 자녀양육을 도와주는 것이 우울을 줄일 수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맞벌이부부의 심리적 복지 향상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직업생활에서 만족을 느낄 수 있는 여건과 부모역할갈등을 감소시킬 수 있는 노력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표 12] 맞벌이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들의 영향력

	변인	B	β
생활만족도	남편 직업만족도	1.12	.49 ***
	남편 보육방법만족도	1.49	.22 ***
	남편 부모역할갈등	-.15	-.18***
	남편 학력	.96	.13 **
	남편의 양육참여도	.99	.13 **
	Adj-R ²	.55	
	F-value	54.77 ***	
부인	부인 직업만족도	1.20	.41 ***
	부인 부모역할갈등	-.20	-.25 ***
	부인 남편의 양육참여도	1.34	.18 ***
	부인 학력	.71	.11 *
	부인 취업동기	1.00	.11 *
	Adj-R ²	.41	
	F-value	30.57 ***	
남편	남편 부모역할갈등	.43	.45 ***
	남편 직업만족도	-.70	-.26 ***
	남편 학력	-1.86	-.22 ***
	Adj-R ²	.42	
	F-value	54.94 ***	
부인	부인 부모역할갈등	.44	.44 ***
	부인 직업만족도	-.61	-.18 **
	부인 소득	-.91	-.17 **
	부인 남편의 양육참여도	-1.33	-.15 **
	Adj-R ²	.37	
	F-value	33.87 ***	

* p<.05 ** p<.01 *** p<.001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고, 관련변인과 부모역할갈등이 심리적 복지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은 부인이 더 크며, 심리적 복지는 부부 모두 높은 편이었다. 그리고 직업만족도와 부모역할갈등이 심리적 복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은 성별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부인들의 부모역할갈등이 남편들의 그것보다 더 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부모역할을 더 많이 담당하기에 나타나는 결과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으로 남편보다 부모역할에 대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부인은 자신의 일의 중요성, 필요성을 가족원에게 이해시키고 적극적으로 도움을 받는 태도가 필요하고, 남편은 자녀양육에 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역할보완을 통하여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는 노력이 이루어져야 부부간의 갈등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간의 생활만족도는 성별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취업부인이 부모역할에 따른 갈등을 겪으면서도 생활만족도가 높은 것은 직장생활을 통한 자아실현과 만족감이 갈등을 상쇄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울은 맞벌이 부부의 성별에 따른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며, 부인들이 남편보다 우울이 조금 높게 나타났다. 그러므로 여성이 자기자신의 신체적, 시간적, 정신적 한계를 스스로 인정하며 자신의 정신건강을 위한 시간들 의도적, 주기적으로 마련하여 쌓인 긴장을 푸는 등 우울에 적절히 대처를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직업변인에서는 직업만족도와 직무적응도가 맞벌이부

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에 차이를 가져오며, 업무중요도와 직무능력도는 부모역할갈등에서는 남편의 경우만, 심리적 복지에서는 부부 모두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들이 직업역할에 몰입할 때 아버지 역할에 대한 갈등이 줄어들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으며 업무중요도, 직무적응도, 직무능력도가 중요한 변인으로 나타난 것은 본인의 직업적 적응력이나 자세가 심리적 복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개인의 생활만족도 등 전반적인 복지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직업적인 능력향상이나 만족도를 증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하겠다.

셋째, 자녀양육관련변인에서는 보육방법만족도, 남편의 자녀양육참여도, 모 취업영향인지가 맞벌이부부의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에 유의한 차이를 가져오는 변인이다. 자녀양육분야에 남편들의 참여가 늘고 있기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주로 아이와 놀아주거나 교육하는 등의 활동에 주로 편중되어 있고, 실제적인 자녀양육을 위한 노동은 쉽게 받아들이고 있지 못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실질적인 육아역할 참여를 증진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실제적인 자녀양육기술을 습득하도록 여러 교육과정을 통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그리고 특히 남편의 경우 부모역할갈등과 심리적 복지에 모 취업이 자녀에게 부정적이라는 평가와 불평등한 부모역할관이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으므로 어머니 취업이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라는 생각에서 벗어난 평등적인 사고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넷째, 맞벌이부부의 심리적 복지에 가장 영향력 있는 변인은 긍정적 측면에서는 직업만족도, 부정적 측면에서는 부모역할갈등이다. 이것은 부부 모두에게 직업에서의 만족과 함께 부모로서 느끼는 갈등이 맞벌이 부부의 행복도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침을 말해주는 것이다. 따라서 맞벌이부부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는 실제적으로 직업환경의 개선을 통한 직업만족의 향상과 이들의 역할갈등문제를 해결해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하겠다.

- 접수 일 : 2003년 05월 15일
- 심사 일 : 2003년 05월 20일
- 심사완료일 : 2003년 08월 21일

【참 고 문 헌】

고정가·김갑숙(1997). 취업주부와 비취업주부의 삶의 질에 대한 인과모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5(1), 429-442.
 구혜령(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 전략.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경신·김오남(1996). 맞벌이 부부의 역할기대 및 역할갈등과 결혼

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4(2), 1-18.
 김경신(1999). 취업여성의 스트레스와 관련변인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25-37.
 김리진·윤종희(2000). 직장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취업모의 양육 스트레스에 관한 생태학적인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8(12), 48-58.
 김명자(1981). 주부의 취업유무에 따른 가정내 역할수행에 관한 비교연구. *대한가정학회지*, 19(3), 69-81.
 김소영·옥선화(2000). 기혼남성의 아버지역할과 직업역할 몰입 유형화와 생활만족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8(2), 125-137.
 김수연·김득성(1994). 맞벌이부부의 응집 및 적응이 역할갈등에 미치는 영향. *대한가정학회지*, 32(3), 121-134.
 김순주(1994). 가정내 남편의 역할수행에 대한 부부의 기대 및 평가와 결혼만족도.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영철, 정향균, 이시형(1989). 일반생활에서의 생활스트레스가 정신 증상 및 신체증상에 미치는 영향. *신경정신의학*, 28(2), 284-289.
 김오남(1998). 편모가족의 가족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전남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김용희·제미경(1987). 취업여성의 직업만족도 연구 -기혼·미혼여성의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5(2), 11-27.
 박성옥·김정훈(1995). 취업모의 가정생활과 일의 균형을 위한 방안 모색. *대한가정학회지*, 33(4), 1-13.
 백경임·강희경(1995). 3세 이하 자녀를 둔 취업모의 탁아실태와 탁아에 대한 죄책감. *대한가정학회지*, 33(6), 281-293.
 서영숙 역(1990). A. Clarke-Stewart저. 탁아. 서울: 양서원.
 서정아·한경혜(1998). 가족 및 직업특성이 중·장년기 남성의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6(2), 165-177.
 서혜영(1998).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갈등과 부모역할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_____·이숙현(1999). 남성의 일-아버지 역할갈등과 부모역할만족도 및 부모로서의 유능감.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2), 257-280.
 양명숙(1993). 부모전환기에서의 역할연구(I): 부모역할관에 대하여 -첫째 자녀와 둘째 자녀를 출산하는 부모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1(4), 53-66.
 옥경희(1999). 맞벌이 주말부부의 부모역할 갈등. *한국가족관계학회지*, 4(1), 45-66.
 유영주·김순옥·김경신(1996). *가족관계학*. 교문사. p269.
 이기숙(1994). 맞벌이 가족의 여성, 부부 그리고 자녀. *신라대여성연구논집*(5).
 이기영·구혜령(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갈등대처 전략.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0(2), 99-112.
 이동열(1995). 직장-가정갈등이 구성원의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숙현(1995). 남성의 취업과 가족 상호작용: 대기업 사원을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29, 271-289.
 이연숙·이순형·유가효·조재순(1991). 기혼취업여성이 지각하는 가정, 직업생활갈등 및 부적응 증상과 생활만족.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209-223.
 이형실(2001). 기혼취업여성과 남성의 가족 및 직업스트레스와 심리적 복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2), 143-151.
 이희정, 이숙현(1995). 취업모의 심리적 안녕-긍정적 정서와 생활만족도를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3(6), 25-41.

- 임정빈, 정혜정(1986). 취업주부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4(1), 72-93.
- 전영자(1991).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및 심리적 복지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9(2), 323-343.
- _____ (1992). 전문직 취업주부의 역할갈등, 대처방안, 자아존중감 및 심리적 디스트레스 간의 관계. *경희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7). 전문직 취업주부의 스트레스와 대처방안, 심리적 결과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5(1), 340-352.
- 정현숙(1997). 맞벌이 가족의 부모역할긴장과 부부관계. *대한가정학회지*, 35(5), 152-161.
- 조선화(1998). 아버지 만족감 및 스트레스와 아버지역할수행과의 관계. *숙명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원지·한경혜(2001). 직업역할 및 아버지 역할이 심리적 복지감에 미치는 영향: 연령 집단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가족관계학회지*, 6(1), 1-20.
- 조은숙(1997).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경도와 지각된 대처 효율성 및 관련변수.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_____ (1999). 전문직과 비전문직 취업모의 역할긴장에 대한 대처행동 비교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7(4), 173-192.
- 조희금(1999). 취업기혼여성의 일-가정갈등과 직업 및 생활만족도-생산직과 사무직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37(2), 145-157.
- 최규련(1993). 맞벌이 부부의 결혼만족도와 우울증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31(1), 61-84.
- 한경혜(1997). 아버지상의 변화. *여성한국사회연구회 (편), 남성과 한국사회*, 33-52. 서울: 사회문화연구소.
- _____ (1998). 중년기 남성의 역할중요도와 일/가족갈등. *가족과 문화*, 10(2), 93-113.
- 한국가족학연구회 편(1995). *맞벌이가정의 가족문제*. 서울:하우.
- 한국여성개발원(1986). 여성의 취업실태 조사: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 허선자(1992). 아버지역할 지각 및 양육참여 행동에 영향을 주는 변인 분석. *이화여자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허영숙(1993). 주말에 남편을 만나는 맞벌이 여교사의 역할갈등과 결혼만족도.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현은강(1993). 어머니의 부모역할만족도와 관련변인.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현은강·조복희(1994). 부모의 역할만족도 척도의 개발. *대한가정학회지*, 32(1), 103-117.
- 황택순(1992). 직장-가정 갈등과 삶의 만족과의 관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Bradburn, N. M.(1969).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Chicago: Adline Press.
- Baruch, G. K., & Barnett, R. (1986). Role quality, multiple role involvemen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in midlife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Psychology*, 52(3), 578-585.
- Campbell, A., Converse, P., & Rodgers, W.(1976). *The quality of American life : Perceptions, evaluations and satisfaction*. New York: Russel Sage Foundations.
- Daly, K. J.(1993). Reshaping fatherhood : Finding the models. in Marsiglio, W.(ed), *Fatherhood : Contemporary theory, Research, and Social Policy*, CA : Sage.
- Deater-Deckard, K., & Scarr, S.(1996). Parenting stress among dual-earner mothers and fathers: Are there gender differences?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10, 45-59.
- Diener, E. D.(1984). Subjective well-being. *Psychological bulletin*, 95(3), 542-575.
- Guelzow, M. G., bird, G. W., & Koball, E. H.(1991). An exploratory path analysis of the stress process for dual-career men and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3, 151-164.
- Guidubaldi, J. & Cleminshaw, H. K.(1989).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cleminshaw-guidubaldi parent satisfaction scale. In Fine, M. J.(eds). *The Second Handbook on Parent Education*. N.Y. : Academic Press. Inc.
- Hawkins, A. J., & Robert, T. (1992). Designing a primary intervention to help dual-earner couples share housework and child care. *Family Relations*, 41, 169-177.
- Houseknecht, S. K. & Macke, A. S.(1981). Combining marriage and career: The marital adjustment of professional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3), 651-662.
- Keith, P. M. & Schafer, R. B.(1983). Employment characteristics of both spouses depression in two-job famili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11.
- Kessler, R. C. & McRae, J. A.(1982). The effect of wives, employment on the mental health of married men and women.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7, 216-227.
- Kinnunen, U., Gerris, J., & Vermulst, A.(1996). Work experiences and family functioning among employed fathers with children of school age. *Family Relations*, 45, 449-455.
- Kivett, V. R.(2000). Very-old rural adults: Functional status and social support. *Journal of Applied Gerontology*, 19(1), 58-77.
- LaRossa, R. (1988). Fatherhood and social change. *Family Relations*, 37, 451-457
- Marks, S. R.(1977). Multiple roles and role strain: Some notes on human energy, time and commitment.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2, 921-936.
- Marks, N. F.(1996). Flying solo at midlife: gender, marital status and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4), 917-932.
- Marks, S. R. & MacDermid, S. M.(1996). Multiple roles and the self : A theory of role balance,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 417-432.
- Mortimor, J., & London, J.(1984). The varying linkages of work and family. In P. Voydanoff(ed.), *Work & Family*. (pp.20-42). Palo Alto, CA: Mayfield Publishing Co.
- Olson, D. H. & Barenes, H.(1982). *Family inventory of quality of life*. Minnesota: *Family Social Science*. The University of Minnesota.
- Olson, D., Frieze, H., Detlefson, G.(1990). Having it all? Combining work & family in a male & a female profession. *Sex Roles: A Journal of Research*, 23, 515-533.
- O'Neil, R. & Greenberger, E.(1994). Patterns of commitment to work and parenting: Implications for role strai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101-118.
- Pealin, L. I. & Schooler, C.(1978). The structure of coping.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19, 2-21.

- Pleck, J. H.(1993). Are "Family-supportive" employer policies relevant to men? In J.C. Hood(Ed.), *Men, Work and Family*(pp.217-237). Newbury Park, CA: Sage.
- Rachoff, L. S.(1977). The CES-D scale : A self-report depression scale for research in the general population. *Applied Psychological Measure, 1*, 385-401.
- Ross, C. E.(1995). Reconceptualizing marital status as a continuum of social attachmen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7*, 129-140.
- Ross, C. E. & Mirowsky, J.(1988). Child care and emotional adjustment to wives' employment.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9*, 127-138.
- Saenz, R., Goudy, W. J. & Lorenz, F. O.(1989). The effects of employment and marital relations on depression among Mexican American wom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2), 239-251.
- Silverstein, M., Chen, X. & Heller, K.(1996). Too much of a good thing? Intergenerational social support and psychological well-being of olde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8*(4), 970-982.
- Sinner, D. A.(1980). Dual-career family stress and coping : A Literature Review. *Family Relations, 29*, 473-480.
- Sitze, G.(1988). Women's employment and family relations : A review.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8), 595-618.
- Styker, S. & Serpe, R.(1982). Commitment, identity salience, and role behavior. In Ickes. W. & Knobelws, E. (eds). *Personality, roles and social behavior*, (pp. 199-218). N.Y.: Springer-Verlag.
- Thomas, S., Albrecht, K. & White, P.(1984). The determinants of marital quality in dual career couples. *Family Relations, 33*(4), 513-522.
- Ulbrich, P. M.(1988). The determinants of depression in two-income marriage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2), 121-131.
- Umberson, D.(1989). Relationships with children: explaining parents' psychological well-being.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1*(4), 999-1012.
- Veroff, J.(1982). The structure of psychological well-being: A sociohistorical analysi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3*(4), 635-673.
- Voydanoff, P.(1988). Work role characteristics family structure demands, and work/family conflict.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0*, 749-761.
- Webster-Stratton, C.(1988). "Mothers' and fathers' perceptions of child deviance: roles of parent and child behaviors and parent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56*, 909-915.
- Wethington, E., & Kessler, R. C.(1989). Employment, parental responsibility and psychological distress. A longitudinal study of married women. *Journal of Family Issues, 10*, 527-546.
- Windle, M., & Dumenci, L.(1997). Parental and occupational stress as predictors of depressive symptoms among Dual-Income couple: A Multilevel modeling approach.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9*(3), 625-634.
- Yankelovich, S. and White.(1977). Raising children in a changing society. *The General Mills American family report : 1976-1977*. Minneapolis : General Mills.